

# 2020년,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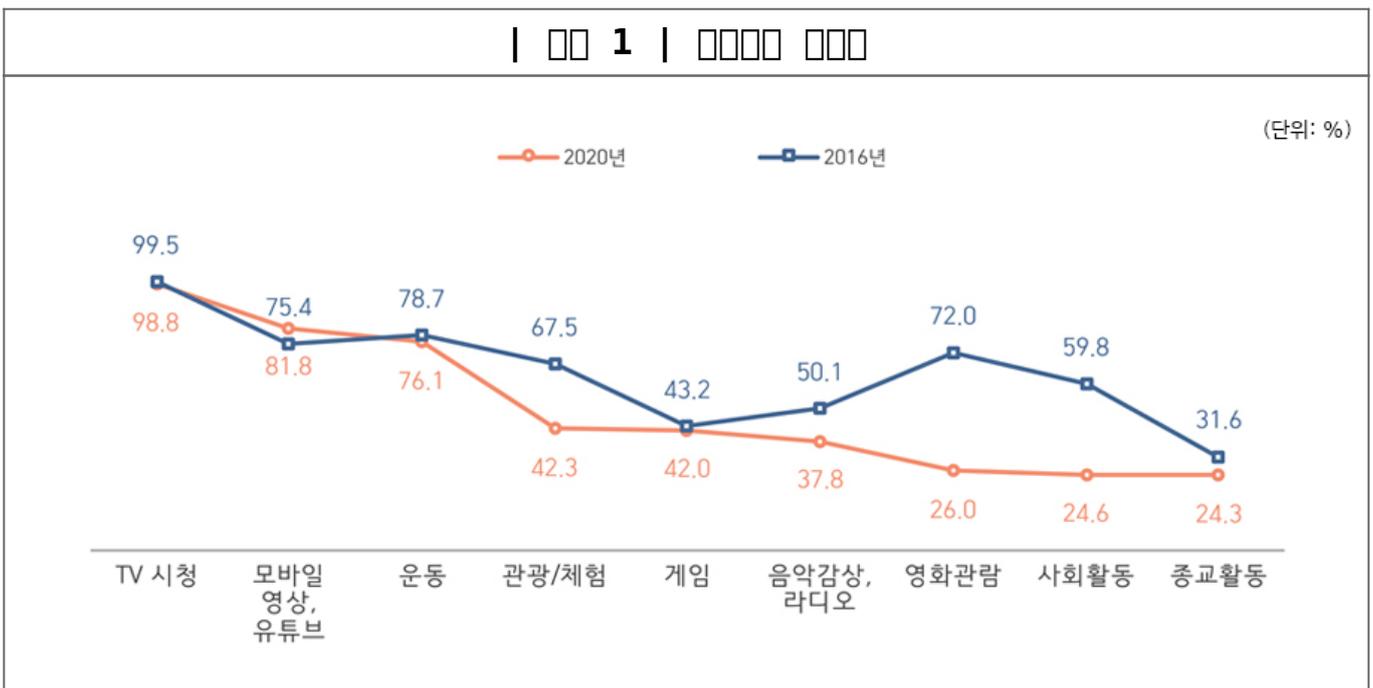
## 2020년,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

2020년 2분기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여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여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여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 2020년,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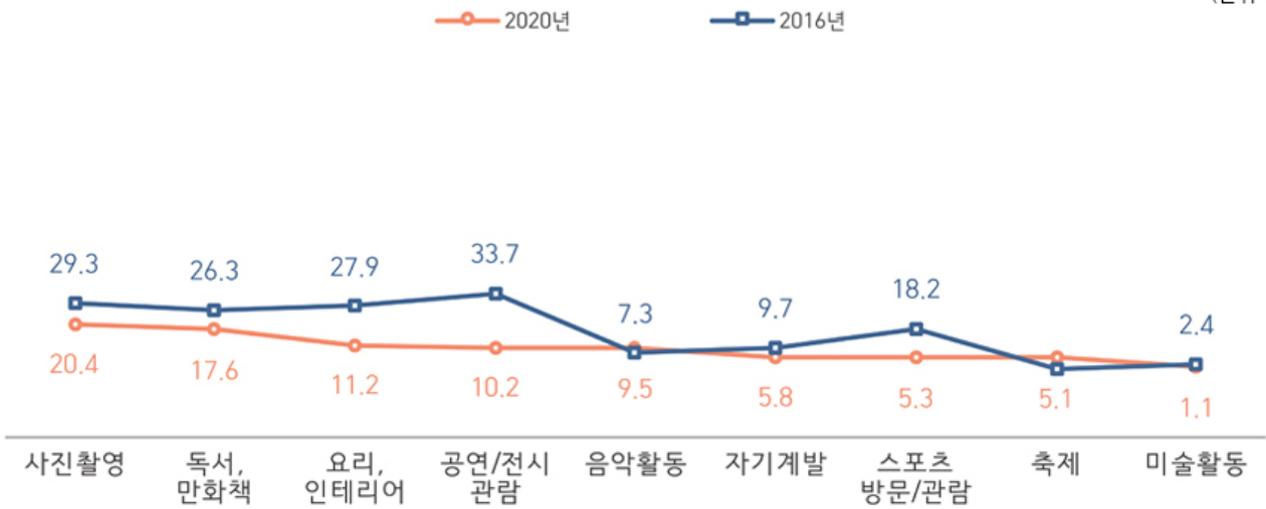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여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여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여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 2020년, 국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



| 02 | 0000 00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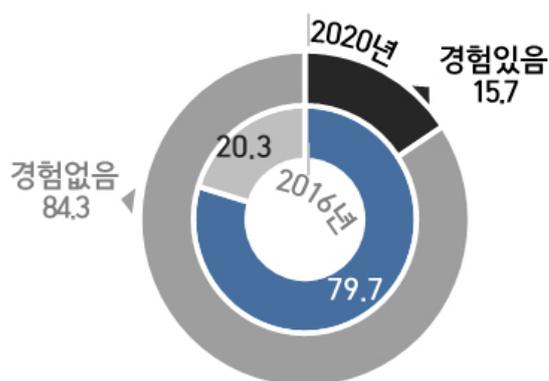


2019년 00000 0000 0000 000 00 00, 000 0000 0000 00 0 00 0000 0 00 0000. 000 000, 00000 2020년 0000 0 00000000 000 000 00019 00 000 0000 00 000000.

000000 00, 00 000 000 00 TV 00, 000 00, 000 00 000 0000 000. 00 0000(▼46.0%p), 0000(▼35.2%p), 00/00(▼25.2%p) 0 00 0000 000000 0 00 0000 00 0000.

| 03 | 0000 00 00 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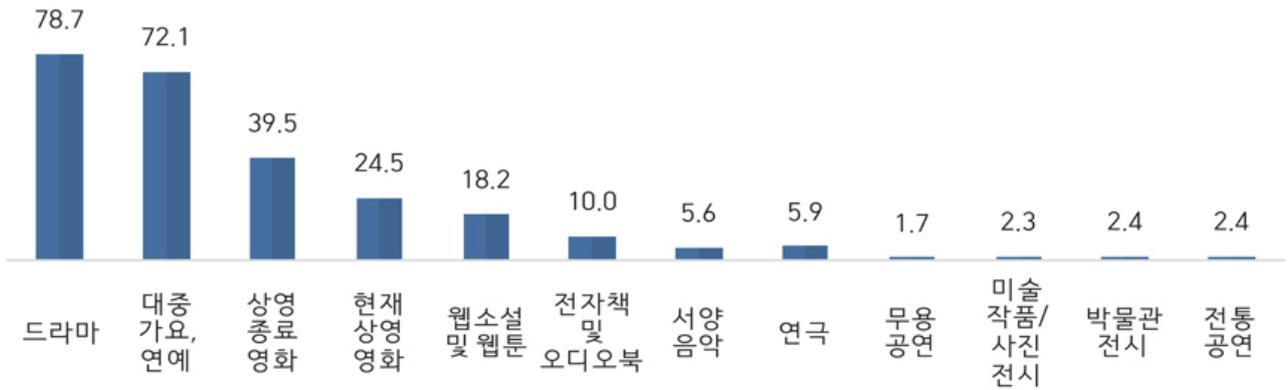






| 07 | 00 00 000 0000 00 00

(단위: 증가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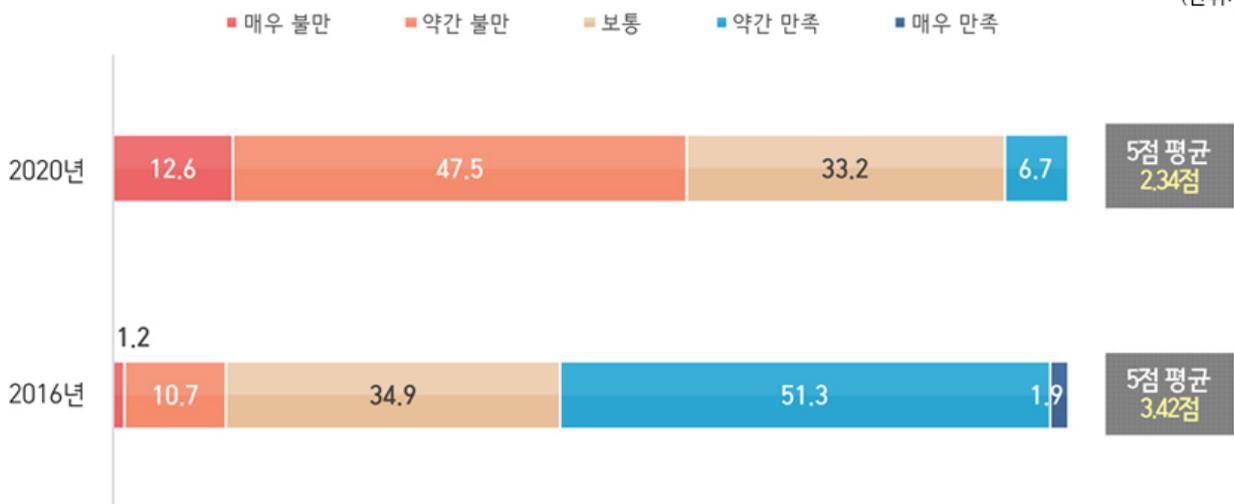


2019년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분야는 78.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중가요/연예(72.1%), 상영료 영화(39.5%) 등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무용연(1.7%), 박물관 전시(2.4%), 전통공연(2.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 2020년 5월 5점 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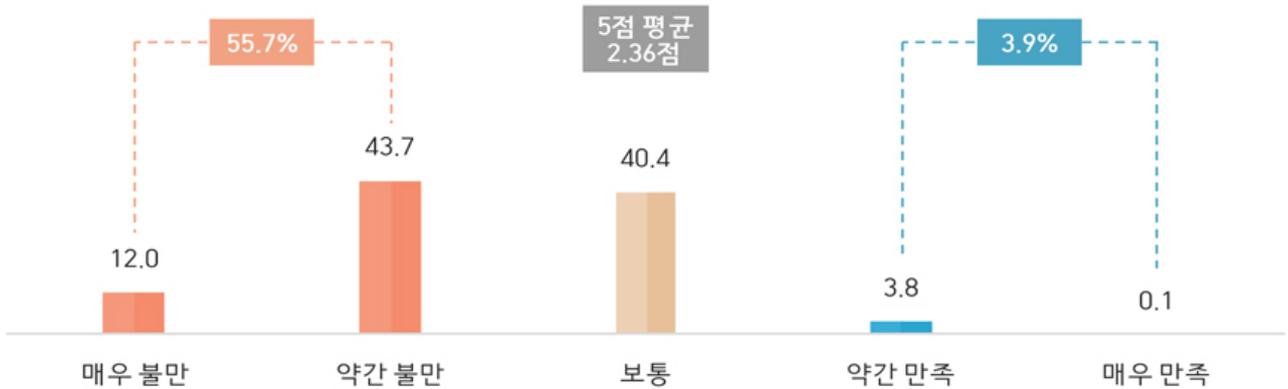
| 08 | 2020년 5월 5점 평점

(단위: %)



| 표 9 | 2020년 국민행복지수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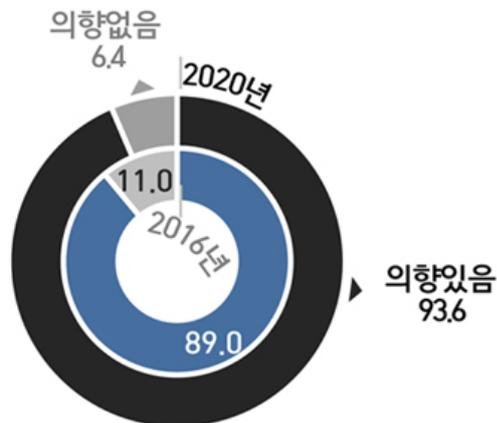
(단위: %)



국민행복지수 조사 결과 2020년 국민행복지수 조사 결과, 국민행복지수 2.36점으로, 전년 대비 0.11점 상승했다. 국민행복지수 2.36점은 '매우 불만' 12.0%, '약간 불만' 43.7%, '보통' 40.4%, '약간 만족' 3.8%, '매우 만족' 0.1%로 나타났다. (2019년 국민행복지수: '매우 불만' 6.7%, '약간 불만' 33.2%, '보통' 60.1% / 2020년 국민행복지수: '매우 불만' 3.9%, '약간 불만' 40.4%, '보통'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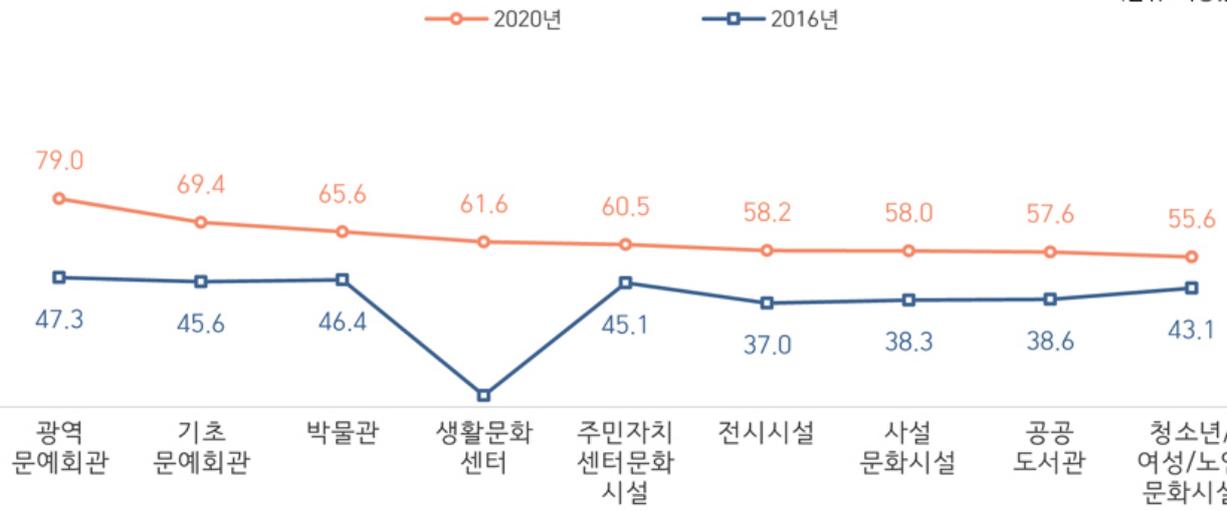
| 표 10 | 국민행복지수 조사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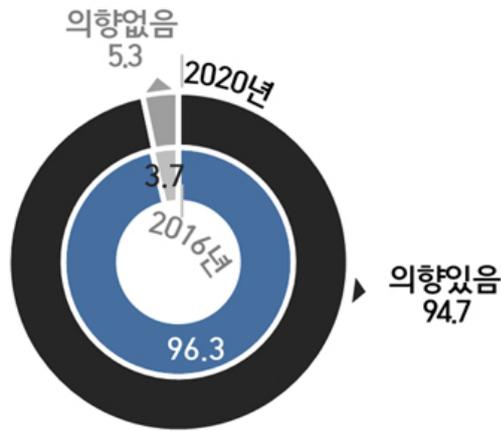
| 11 | 10000 00 00

(단위: 의향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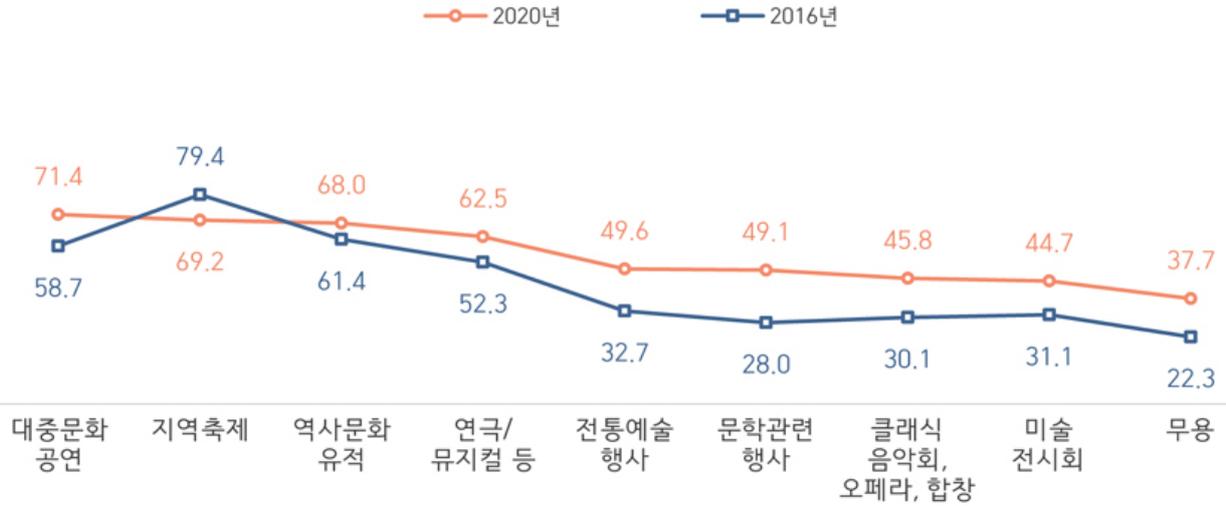


| 12 | 00 0000 00 00 00

(단위: %)



(단위: 의향있음 %)



문화의향감 조사 결과 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문화의향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전통예술 행사, 문학관련 행사,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합창 등 고령층이 선호하는 문화유형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역축제와 미술 전시회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화유형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문화의향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전통예술 행사, 문학관련 행사,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합창 등 고령층이 선호하는 문화유형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역축제와 미술 전시회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화유형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주요: 본 조사는 2004년 이후 4년간 1,000명 이상 2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이다.



본 조사는 (주)케이스탯리서치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